

2023년도 제2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1. 19.(목) 15:00 ~ 16:30

2. 장소 : 행정관 4층 소회의실(비대면 회의)

3. 참석 현황 : 재적위원 30명 중 참석 27명, 불참 3명

☐ 참석위원(27명)

- 당연직(9명) : 기획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재정전략실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 임명·위촉직(18명)
 - 학내위원(9명) : 안○○, 김○○, 박○○, 김○○, 이○○, 이○○, 김○○, 목○○, 류○○ 위원
 - 학외위원(9명) : 김○○, 김○○, 김○○, 박○○, 윤○○, 이○○, 이○○, 정○○, 최○○ 위원

☐ 불참위원(3명)

- 임명·위촉직(3명) : 최○○ 위원, 이○○ 위원, 서○○ 위원

※ 배석(4명) : 예산과 팀장, 예산과 최○○, 조○○, 기획과 김○○, 교무과장, 교무과 박○○,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장, 재무회계부 부장

※ 참관(2명) : 학부 대표 조○○, 대학원 대표 이○○

4. 안건

☐ 전차 회의록 보고

- 2023년 제1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 보고 안건

- 2023년도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세입·세출예산(안)

☐ 심의 안건

- 2023년도 대학운영계획(안)
- 「서울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정(안)
- 2023년도 등록금 등 책정(안)
- 2022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적립금 적립(안)
-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편성(안)

5. 회의 결과

가. 전차 회의록 보고

☐ 2023년 제1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 보고자 : 김○○ 예산과장
- 2023년 제1차 재경위원회(2023. 1. 9.)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나. 보고 안건

☐ 2023년도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세입·세출예산(안)

- 보고자 : 백○○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 실장
- 안건 요지
 - 2023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 및 운영외수익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3억원(10.8%) 증액한 951억원 규모로 편성
- 제시된 의견
 - 9페이지 교수학술활동경비지원 관련 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었다가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액된 예산이 코로

나-19 이전에 지원하던 예산 규모로 회복한 것인지 질의

- ↳ 맞음. 코로나-19관련 조치 등의 완화로 해외 학술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해외 학술활동 건수가 많아지는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이후 지식재산 관련 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 등 인프라가 중요한데, 21페이지의 예산안을 보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비, 기술 이전 활성화 지원비 등이 모두 예산이 감소했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 혹은 배경상황이 있는지 질의.
- ↳ 2023년 예산은 2022년 집행률을 기초로 하여 편성됨. '22년의 경우 간접비 예산을 10% 이상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음. 하지만 실제 집행율을 확인하여 보니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고, 우선적으로는 '22년 집행률 기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함. '23년 하반기 상황을 지켜보며 금액 소요가 추가적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 확대할 예정임.
- ↳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된 예산의 재원은 여러 사업들로부터 확보가 되는데, 각 사업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 그 부분이 집행률에 반영되지 않아 감액이 된 것이라 학교의 방향에 반한 것은 아님. 추후 필요할 경우 추경을 할 것이며 누적된 이월금 등을 활용하면 학교, 교원, 학생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심의 안건

□ 2023년도 대학운영계획(안)

- 보고자 : 성○○ 기획처장
- 안건 요지
- 2023년도 대학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법인회계/발전기금/산학협력단) 및 자산경영체제 고도화(ERP구축, 법인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양여 등)를 추진하고자 함.
- 제시된 의견
- 32페이지 '자산경영체제 고도화' 부분에서 <양여 보류 국유재산 양여를 통한 법인재산 확충>과 관련,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

↳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부지 양여가 있음. 해당 부지를 올해 양여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지난 12월 기재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 공문 통지를 받아 양여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교육부에 송부한 상태로, 회신만 오면 바로 등기 이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게 될 예정임.

그 외에도 다양한 국유림들의 경우 2월 초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 위원, 농생대 학장, 수목원장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유림 양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법인재산 확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 갈 예정임.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서울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정(안)

○ **보고자** : 김○○ 교무처장

○ **안건 요지**

- 현재 서울대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타 사립대학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본교 직원의 명예퇴직 수당 산정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함.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2023년도 등록금 등 책정(안)

○ **보고자** : 김○○ 예산과장

○ **안건 요지**

- 2023학년도 학부·대학원 수업료 및 대학원 입학금을 동결하고자 함.

○ **제시된 의견**

- 2023년도에 공공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등 많은 부분에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등록금을 동결하고도 이런 비용 상승에 대비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염려가 되어, 이제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질의

↳ 오랫동안 학내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 재정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뿐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형 등도 같이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배분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음.

다만, 올해 등록금 책정을 위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학생 측에서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해 원칙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기를 희망하여 소통 창구를 활성화 하는 것까지 합의를 하였음. 다음 번 등록금 책정 시에는 소통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등록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함.

- 타 대학의 2023년 등록금 책정 현황에 대한 질의.

↳ 주요 사립대는 학부는 우리대학과 같이 동결하는 추세이며,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식으로 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됨. 2022년까지는 고려대나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2023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참 교섭 중인 학교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올해는 동결 기조인 것으로 사료됨.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여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만약 추후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이었으나, 특히 2023년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 쪽으로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흐르고 있음.

- 서울대학교의 주요 수입원으로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만약에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확보에 영향이 가는 것일지, 아니면 등록금 책정과는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인지 문의

↳ 기본적으로 출연금 심의를 받을 시 등록금의 비율, 등록금이 사용되는 범위를 확인하기는 하나, 전체 예산 내에서 등록금의 비율이 높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 말고도 자체 활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함. 또한, 등록금 인상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학생들과 상당히 구체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금의 책정이 출연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는 않음.

한편, 국가장학금 예산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 지원금지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있어 사실 등록금 인상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은 존

재함.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교육부에서 장학금 제도를 개선책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은 국고 출연금 지원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다고 아직은 판단됨.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2022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적립금 적립(안)**

- **보고자** : 김○○ 예산과장

- **안전 요지**

- 등록금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교육부대수입 증가 등에서 발생한 120억원을 문화관 재건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편성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편성(안)**

- **보고자** : 김○○ 예산과장

- **안전 요지**

- 2023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6억원(6.1%) 증액한 9,986억원 규모로 편성

- **제시된 의견**

- 새로 부임하시는 총장님께서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강조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 2023년도 재정 운영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항목들이 반영되었는지 질의

↳ 사전 협의를 통해 현안 사업비를 50억 증액하였고,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또한, 보통 이런 대학 운영 성과 혹은 계획은 4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장님의 임기 첫해엔 지난 총장단에서 추진한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가 되고, 1년 후부터 구체적인 예산

을 계획하고 확보해서 2-3년차에 집행하는 것이 큰 흐름임.

다만 차기 집행부와 미리 협의하여 현안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일부 추진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드렸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정부의존도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 보다 출연금 중에서도 특별회계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전망과 관련하여 질의.

↳ 국고 출연금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시켜 확보하여 재정에 여유가 생긴 측면도 있어 등록금 인상도 굳이 하지 않고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었음.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 특별회계 확보분을 서울대학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자 함. 예를 들어 융합적인 AI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구장비 지원, 해외 첨단 융합형 AI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함.

사실 해당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던 상황이라 급박하게 준비가 된 측면이 있어, 일단 초고가 연구 장비 중심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함.

또한, 국고 의존율이 계속 높아졌고 올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국고 출연금 대폭 증액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타회계 전입금 증액, 교육부대수입, SNU홀딩스 자회사를 통한 MRO사업 등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음.

-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지방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지방에 나눠주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독자적인 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방 거점 대학과의 상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은 차기 집행부에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처음 기재부와 교육부가 먼저 제시한 금액은 노후 건물 건축 설비 비용 등을 예상한 5~60억 수준이었으나, 서울대학교의 경우 대학 및 대한민국의 국

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100억원을 요구하였고 논의결과 350억원 배정이 되었으나, 국회에까지 논의된 결과 최종적으로 180억원을 배정받음. 교육부에서도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취지가 지방대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의 취지(국제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 등 확보와 관련하여 노력하겠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시 발전기금 예상 전입금이 약 2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50억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 자료에 비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질의

↳ 발전기금 전입금이라는 항목은 사실 전입금의 형태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님. 전입금의 형태로 지원과 더불어 다른 식으로도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까지 합하여 전입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음.

- ※ 당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상 공공요금 산출기준은 '22년 10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차 재경위원회가 열리는 '23년 1월 중순을 기준으로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료에 반영한 것임.

- 121페이지에 장학·복지와 관련된 장학금 지원 관련 4가지 사업에서 작년에 비해 예산의 변동이 큰 항목들의 변동 사유에 대한 질의

↳ 장학금 전체 예산은 359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없고, 장학금 예산 내에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것임. 예를 들어 2022년에 '교내 장학금 지원 사업'에 239억 배정이 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을 현실화하고 재배분하였음.

- 서울대학교법인의 재정 자립도와 건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및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 국유재산 양여와 관련하여 인수인계가 잘 되어 차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희망함.

↳ 결국 재정자립도 없이 자율은 없다고 봄. 정부 의존도를 줄임에 있어 정부 출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자체 재원 확보하고 확대해나가는 방안에 대해 차기 집행부를 포함하여 함께 설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끝.